

오순절 후 스물다섯 번째 / 추수 감사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87 장 “감사하는 성도여” (통일 30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06 번 감사절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사무엘상 (1 Samuel) 7:5-14</b>	정강섭 집사
찬 양 Anthem	“찬양의 심포니”	찬양대
설 교 Sermon	<b>“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나니”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Song	“감사해”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428 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나” (통일 48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는 허망한 생각과 물질적 안락함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친 우리를  
공허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참되고 진실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 요일 2:16,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개역개정 **삼상7:12**)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NIV **1 Samuel 7: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19 (주일)	11/20 (월)	11/21 (화)	11/22 (수)	11/23 (목)	11/24 (금)	11/25 (토)
	대상13,14	대상15	대상16	대상17	대상18	대상19,20	대상21
본문	약1 암8 눅3	약2 암9 눅4	약3 욥1 눅5	약4 욥1 눅6	약5 욥2 눅7	벧전1 욥3 눅8	벧전2 욥4 눅9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22수 오후730)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벧전2:18-25)
토요 새벽기도회 (11/25토 오전630)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나” (시119:145-152)

지난 주일(11/12)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롬 8:18-27)

“어떻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장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  
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건대” 또는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헬리어 “로기조마이”  
는 단순한 생각이나 잡념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한 곳에  
고정시키다” 또는 “꼼꼼히 심사숙고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심사숙고하며, (또한)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될 때, (과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도 안된다는 사실  
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3:1)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특히 고난 중에 우리는 더 더욱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탄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고난 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탄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허무하게 굴복하거나,  
씩어짐에 중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